

지스트, 반도체 인재 양성 위해 삼성전자와 '반도체공학과' 신설 협약

- 2024년부터 5년간 총 150명 선발...장학생 전원 삼성전자 입사 기회 제공
- 반도체 공정 전문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예정



▲ 지스트와 삼성전자주식회사가 업무협약 체결 후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지스트 조정희 대학장, 이형석 국회의원, 지스트 박래길 총장직무대행, 삼성전자 송재혁 사장, 양향자 국회의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삼성전자 박승희 사장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 직무대행 박래길)는 삼성전자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와 반도체 공정 전문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반도체공학과**를 설치하기로 했다.

협약식은 3월 27일(월) 오전 11시 지스트 박래길 총장직무대행, 조정희 대학장, 전창덕 연구원장, 삼성전자 송재혁 사장, 박승희 사장,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 이형석 국회의원, 양향자 국회의원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스트 오룡관에서 진행됐다.

지스트는 삼성전자와의 이번 협약을 통해 ▲반도체 공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반도체공학과 신설 및 운영 ▲반도체 공정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지원 ▲반도체공학과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스트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30명씩 총 150명**을 반도체공학과 학·석사통합과정 학생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학생은 **7학기의 학사과정과 3학기의 석사과정을** 이수하게 되며, 이중 장학생으로 선발돼 삼성전자에 채용된 학생은 **반도체 공정 전문 인력으로** 양성된다.

한편 이날 디지스트와 유니스트도 각 학교에서 삼성전자와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신설을 위한 협약 체결을 진행했다.

이로써 삼성전자와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신설해 운영하는 학교는 성균관대, 연세대, 카이스트, 포스텍에 이어 3개 과학기술원(지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까지 총 7개 학교로 늘었다.

최근 국제적인 반도체 사업 재편 등으로 국가의 반도체 관련 경쟁력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반도체는 현재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일 뿐 아니라 AI, 자율 주행, 로봇과 같은 미래 산업을 이끌 미래 첨단 산업이다.

이를 위해 반도체소자의 지속적 집적도 향상과 고성능화가 중요하며,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자의 집적도와 고성능화 문제를 극복하고 반도체 집적 공정 기술의 발전을 이끌 핵심인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역시 지난해 '범정부 차원의 반도체 인재 양성 시스템 마련'의 중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최근 5년간 연 평균 8개의 기술 스타트업을 배출하고 있는 지스트는 반도체공학과 신설에 따라 **지역 내 반도체 전문 인재를 양성하여 반도체 분야에서 호남의 기술 창업 허브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지스트 박래길 총장직무대행은 "이번 협약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지역 균형 발전과 창의적인 인재 양성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스트의 우수한 교육·연구 자원과 삼성전자의 세계적인 기술력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